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4일 목요일 음 9월 9일 (1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 내외. 낮 최고기온은 26-27℃로 전망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and humidity forecasts for the day and week.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식중독지수 관심, 자외선지수 보통

Table with air quality (PM10, PM2.5) forecasts.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20/26℃, 모레 흐리고 비 19/20℃

월드뉴스

엘니뇨로 열대지역 어린이 영양실조

이상 강우로 후유증 지속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오르는 '엘니뇨' (El Nino)가 발생할 때마다 이상 강우로 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빠지고 후유증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베트남 논.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제학과 제시 안탈라-휴즈 조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986-2019년의 엘니뇨 관측 자료와 51개 개발도상국 어린이 130만명의 인구·보건 자료를 분석해 얻은 이런 결과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다.

줄어든 국가에서 나타났으며, 강수량이 늘어난 일부 국가에서도 포착됐다. 연구팀은 이미 20%의 어린이가 표준 체중에 심하게 미달하는 열대지역 국가 전반에 걸쳐 엘니뇨가 영양실조 어린이를 늘려놓는 것으로 분석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오르면서 약 4-7년 주기로 발생해 일부 지역에는 강수량이 줄어들며 가뭄을 가져오고 다른 지역에는 반대로 너무 많은 비를 뿌리는 등 강우 양상을 바꿔 놓는다. 이런 기상이변은 특히 열대지역의 농작물 작황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연관성은 엘니뇨로 강수량이

어린이의 평균 이하로 떨어진 체중은 엘니뇨가 끝난 뒤 다시 회복됐지만 키 성장은 영양실조의 총격으로 수년간 저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전형적인 엘니뇨로 어린이 영양실조가 치솟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양실조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문화·여가 관련 2가지 국가승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비대면 여가활동과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이 코로나19로 크게 증가했다.

모두의 정주여건 위한 생활권 공원과 숲, 탄소중립

날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이며, 주민들의 소통 장소이다. 정주여건을 말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원이기도 하다. 공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휴식 공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도시 공원이 하나의 시설로 1961년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후 도시계획의 일부가 되어 도시공원이라고 명명(命名)하게 됐다.

산림청은 올해 초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매년 1억 그루의 나무를 30년간 심어 30억 그루의 나무로 탄소 3400만t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으로 자연친화적인 '숲과 나무'를 선택한 것이다. 그 중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바람길 숲, 생활밀착형 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공원과 공터를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을 보게 된다.

원 내 공유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광주시 전역에 14만㎡ 규모의 도시바람길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에는 248개소의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194개소는 조성완료가 돼 있고, 19개소는 조성중이다. 35개소는 미조성 공원이며 그중 어린이공원은 11개소이다. 대신공약을 비롯해 '탄소중립 제주'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 다양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생활권 공원·숲 조성 활성화 정책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더불어 탄소중립 제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코로나19가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는 큰 경각심을 갖게 된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저탄소정책과 중심축과 더불어 각 부서의 주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열린마당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김솔 제주시 삼도2동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기업은 물론 가계 역시 위험에 닥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주민센터는 찾는 민원인 대부분은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곤 한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은 73만명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꾸준히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21년 9월, 개인의 생애주기별 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추가 신청



고옥진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 국비예산과 도 예산을 합한 80% 지원과 자부담 20%로 운영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신청하지 못한 많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중단의 판로난을 겪었던 친환경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임산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로서 온라인 신청(www.ecoemall.com) 또는 주

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올해 1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대상자 검증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이 이뤄진 후에는 별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 가능사이트에 대해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과 지원내용은 같으나 신청 방법에 있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이고 제외대상은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중인 자이며, 2020년,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자이다.

신청방법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게 되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해준다. 단 자부담 20%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 064)728-335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23로 문의하면 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Asahi 4.5 year old rice, featuring product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kpa Nongsan.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highlighting various rice varieties like Harejosong and Tamnabong.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featuring various types of corn and other crops.

Advertisement for TI Information Technology, showcasing their services in voice, video, and network solutions.